중생을 지지하고 이상 세계로 이끌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⑱ 불국토(佛國土)의 인도자, 거북[龜]


양산 통도사 명부전 수궁도 벽화(조선 후기).

세상 등에 업고 지탱하는 굳건한 상징
고난의 중생 불국토로 인도하는 역할
연꽃 조합 장식으로 화재 예방 의미도
온화한 성품 희생·정신 가치 일깨워


거북을 든 청도 적천사 명부전 동자상의 일부(조선 1676년).


거북을 탄 동자상(조선 후기, 통도사성보박물관).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통일신라 883년).

사찰 초입부 혹은 깊숙한 곳에는 '부도원(浮屠院)'이 위치한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승탑(僧塔)'과 그 행적을 기록한 '탑비(塔碑)'가 빼곡하게 자리 잡은 부도원을 살펴보면 비석을 받치는 동물이 대부분 거북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찰 곳곳에서는 거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 제작된 동자상 대부분은 거북 등 위에 타고 있거나 반려동물처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수미단(須彌壇)에는 물고기, 개구리 등과 함께 거북이 헤엄치며 연꽃 사이를 노닐고 있다. 또한 양산 통도사(通度寺), 상주 남장사(南長寺) 등 여러 사찰 벽화 중에는 토끼와 함께 용궁으로 향하는 별주부(鼈主簿)가 표현된 '수궁도(水宮圖)'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거북은 왜 항상 누군가를 태우거나 짊어지며 나아가는 이미지가 된 것일까?

세상을 받치는 버팀목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十長生)'의 일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 이상까지 살 수 있는 긴 수명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문화 속의 거북은 장수보다는 하늘과 대지를 받치는 버팀목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중국 신화 속 창조의 여신 '여와(女媧)'는 무너져 가는 하늘을 거북의 다리로 지탱했고, 〈열자(列子)〉에는 신선들이 사는 산이 뿌리가 없어 떠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15마리 거북이 그 산을 지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기원전 3~4세기 편찬된 시문집인 〈초사(楚辭)〉에도 "산을 등에 지니고 다니는 큰 거북은 어떻게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거북이 바다를 떠나 육지에 오르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여 거북이 산을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유 휘젓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인도 '유해교반(乳海攪拌)' 설화에는 유지의 신 '비슈누(Viṣṇu)'가 가라앉는 만다라산을 지탱하기 위해 거북 모습을 지닌 '아바타(Avatar)'인 '쿠르마(Kūrma)'로 변했고, 인도네시아 발리 원주민 신화에는 거대한 거북이 산과 강, 초목을 지탱하는 땅이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거북이 산과 대지를 지탱하고 짊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북의 신체적 특성에 있다. 거북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높고 강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200여 배에 달하는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거북의 높고 강한 등껍질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을 뜻하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했고, 사람들의 관념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래서 거북은 세상을 짊어지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받치고 지탱하는 거북의 이미지는 비석 받침인 '귀부(龜趺)'로 발전된다.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 건 망자를 존경하고 기린다는 뜻으로 받침을 거북 모양으로 조각해 비석이 쓰러지지 않고 오랜 시간 튼튼하게 유지되기를 희망했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보여준다.

물과 땅을 넘나드는 인도자

거북은 수생생물이지만 육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북의 산란 습성이다. 어미 거북은 산란기 때 육지로 올라와 땅속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곧바로 바다와 강으로 돌아가 일생 대부분을 보내며 산란기 때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육지로 올라온다. 이처럼 땅과 물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는 생태적 습성을 '수륙양생(水陸兩生)'이라고 하며, 거북 외에 개구리, 두꺼비 같은 양서류도 해당한다. 그러나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물속에 알을 낳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수륙양생 동물은 바로 거북일 것이다.

이처럼 거북은 수많은 수생생물 가운데 물과 육지를 모두 다닐 수 있는 대표 주자다. 그래서 거북은 불교에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 또는 이상향으로 데려가는 인도자 역할로 등장하곤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설화인 〈본생담(本生譚)〉 가운데 악어와 원숭이가 등장하는 '원숭이왕 설화'가 우리나라에 토끼와 별주부로 전해져 이상 세계인 용궁으로 향한다는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다.

〈별주부전〉 외에 인도자, 구출자의 모습은 또 다른 〈본생담〉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당(唐)나라 시기 활동한 의정(義淨) 스님이 번역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의 '거북왕 설화'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후 어느 때에 500명의 상인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갖가지 보물을 채집했다. 채집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마갈어(磨竭魚)를 만나 배를 잘못 운항하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자, 상인들이 모두 슬피 울며 절규하였다. 그때 거북왕이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물속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내 등에 타시오. 내가 이제부터 그대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게 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의 '거북왕 설화'는 거북왕이 난파된 배에 갇힌 상인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이야기다. 거북왕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태운 탓에 힘들어했지만, 자신의 심신을 가다듬었고, 마침내 상인들을 육지까지 무사히 데려다줬다고 한다. 이외에도 거북을 타고 이상향의 세계로 간다는 기록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교에서 거북은 불국토의 인도자로 여겨지게 된다.

불국토의 상징

불교에서 물은 심신을 맑게 하는 감로(甘露)이자, 이상 세계 그 자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연꽃으로, 흙탕물에서 피어난 연꽃은 청정과 부처님, 불국토를 장엄하는 존재다. 바로 이 연꽃과 불교문화 속 수생생물의 선두인 거북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밀교 경전 중 하나인 〈감로군다리보살공양염송성취의궤(甘露軍荼利菩薩供養念誦成就儀軌)〉에는 황금 거북의 등으로부터 여덟 잎의 큰 연꽃이 솟아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수생동물의 대표인 거북이 부처님의 상징인 연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고려시대 장신구부터 법당 내부 장식, 조선시대 목가구 등 여러 문양에는 연꽃과 거북이 함께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앞서 살펴본 불교문화 속 연꽃과 거북의 조합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법당 내부 장식의 거북의 경우 수생동물인 거북을 새겨 화재를 예방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

마치며

불교문화 속 거북은 느리지만 강한 등껍질로 모두를 위해 힘쓴 버팀목 역할을 했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상 세계로 바래다주는 인도자를 자처했다. 이러한 거북의 온화한 성품과 희생정신은 우리들이 꼭 배워 나가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는 바쁘게 돌아간다. 덕분에 빠르긴 하지만 삭막하기도 하다.

이에 한 번쯤은 느림보 거북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빠르게 달리다가 낭패를 본 토끼보다는 느리지만 차분한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듯이 우리 또한 거북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태껏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용덕 작가

제14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1일(토)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 시 상 식 : 2026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4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
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의 염불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